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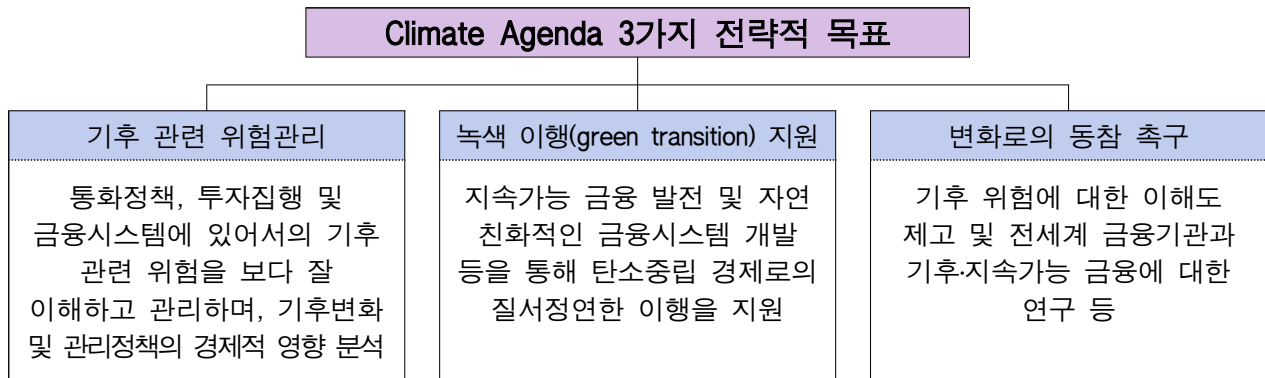
# ECB의 기후 관련 위험관리 동향

## - 은행감독 부문을 중심으로

| 작성 부서      | 작성일시       |
|------------|------------|
| 프랑크푸르트 사무소 | 2024.4.30. |

### I 기후위험 관리 체계

- **[개요]** 기후변화와 자연파괴는 경제와 금융분야에 위험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험과 탄소중립경제로의 이행이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함으로써 중앙은행 및 감독당국의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물가 및 은행 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음
  -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ECB는 ① 기후 관련 위험관리, ② 녹색 이행 지원, ③ 폭 넓은 변화로의 동참 촉구 등 3가지 전략 목표를 세우고 이를 추진하고 있음



- 프랑크푸르트사무소의 '24.1분기 보고서에서는 위 3가지 전략 목표 중 "기후 관련 위험관리"를 중심으로 ECB가 추진 중인 통화정책 운용, 기후변화 관련 지표 개발실태 등을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후속 보고의 일환으로 실물경제 및 금융시스템과 연계성이 큰 은행감독(banking supervision) 부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음

## II 기후 관련 위험관리(은행감독 부문을 중심으로)

- 기후위험은 극단적 기상 사건 등 물리적 위험(physical risk)과 탄소제로 경제로의 전환과 관련된 불확실성 등 이행위험(transition risk)을 통해 은행시스템의 안정을 위협
  - 따라서 은행들이 해당 위험을 적정하게 발견·관리·공시하며 기후 및 이행 관련 충격에 대해 적절하게 관리·대응할 수 있게 하는 등

유로지역내 은행 분야 및 금융 시스템을 보다 탄력적이도록 하는 것이 감독자인 ECB의 책무

- 이를 위해 ECB는 기후위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은행에 자체적인 시행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실태 점검과 함께 관련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여 은행의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등 은행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음
  - 또한 은행감독 중점사항에 반영하여 은행들의 신속한 개선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지난 '20년부터 ECB가 시행한 은행감독 관련 정책들을 시간 순서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 1 기후위험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20.11월)

- (개요) ECB는 기후 및 환경 위험에 대한 가이드라인(Guide on climate-related and environmental risks)을 통해 위험관리 및 공시 관련 표준을 제시하면서 향후 감독방안에 대한 큰 로드맵을 제시
  - (위험관리) 영업모델, 영업전략, 이사회/조직/보고체계 등 지배구조, 신용/운영/시장/유동성위험 관리, 시나리오 분석 및 스트레스테스트 등으로 세분하여 표준을 제시

- (공시) 공시 정책과 절차, 기후 및 환경위험 공시 내용 등으로 세분하여 표준을 제시
- (로드맵) 은행의 자체 프로세스 마련 등 준비기간('21년도)을 부여하고, 이후 은행의 업무관행을 중점 점검하면서 동시에 기후위험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는 등의 큰 로드맵에 따라 아래에서 기술되는 업무를 순차적으로 수행

## 2 기후위험 관리실태 평가 ('21.11월)

- 모든 은행이 개선을 위해 첫발은 내디뎠지만, 어느 한 은행도 감독 기대수준에 상응할 정도의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였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선 계획의 이행 속도가 너무 느려 '22년도에 실태 점검을 추가로 실시
- 112개 감독대상 은행 중 절반 가량은 기후위험이 신용/운영/영업모델 위험 등을 중심으로 향후 3~5년 이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하였지만, 기후위험에 전혀 노출되지 않았다고 답변한 은행들도 있었는데 동 은행들은 모두 위험평가에 있어서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으로 확인
- 다만, 대상은행의 2/3 정도가 자체 검증절차를 강화하거나 기후위험 노출이 심한 자금조달을 억제하는 등 신용위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담보물 평가시 에너지 등급확인을 실시하는 등의 바람직한 업무내용을 마련
- 향후 ECB는 기후위험 요소를 은행 위험평가프로세스(SREP : Supervisory Review and Evaluation Process) 방법론에 반영하여 궁극적으로는 Pillar 2 요구자본 수준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할 계획

### 3 기후위험 공시실태 평가 ('22.3월)

- 기후 및 환경 관련 공시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시장 참여자와 공공의 공시 정보내용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은행도 감독 기대수준에 상응하지 못하였음
  - 109개 감독대상 은행에 대한 평가에서 전체 은행의 70%(‘20년도 평가시 50%)가 이사회 관심사항이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정보의 투명성 수준이 미흡한 상황이며, 75%가 은행의 위험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
  - 또한 파리 기후협약\*을 이행하기로 한 은행의 30%가 관련 공시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어 향후 소송 등에 노출될 위험이 상존
- \* '15.12월 195개국에 참여하여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온도가 2°C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의 단계적 감축을 노력하기로 합의

### 4 기후위험 스트레스 테스트 ('22.7월)

- (총평) ECB는 기후위험 스트레스테스트에서 '20년 이후 많은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로지역내 은행들이 기후위험 요소를 충분히 자체 스트레스테스트 체계 및 내부모형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결론
- 동 테스트는 자본적정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은행과 감독당국 양측에 대한 학습과정의 일환으로 시행되긴 하였으나, 업계의 기후관련 위험에 관한 모범사례를 수집하고 기후위험에 대한 대응상황을 확인하는 등 정량적/정성적 정보를 수집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목표를 달성

- 관련하여 ECB는 은행들이 은행별 기초자료 관리 수준 차이를 좁히고 업계에서 마련·시행 중인 모범사례를 적극 도입하는 등 기후위험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노력을 조속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테스트 방법론 및 대상)** ECB가 직접 감독하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104개 은행이 자체적으로 ① 기후 스트레스테스트 능력, ② 탄소 배출 기업 등에 대한 의존도, ③ 다양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상황에서의 영업성과 등 3개의 모듈별 평가 결과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

- 다만, 비례성 등을 감안하여 세 번째 시나리오별 테스트는 41개 은행에 대해서만 실시

□ **(테스트 결과 1)** 첫번째 모듈 평가결과, 평가대상 은행의 60%가 기후위험 스트레스테스트 체계를 갖추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은행이 기후위험을 자체 신용위험 모형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

- 또한 은행의 20% 수준만이 대출심사 과정에서 기후위험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은행들이 업계 모범을 업무체계에 적극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 기후위험 대응능력을 조속히 강화할 필요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테스트 결과 2)** 두번째 모듈 평가결과, 은행의 비금융회사에 대한 수익의 약 2/3 가량이 탄소배출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발생하고 있고,

- 특히, 많은 은행들이 소수의 거대 탄소배출 기업에 대부분의 대출을 집중하고 있는 등에 따라 향후 은행들의 이행위험 노출을 증가시킬 우려

- 또한 대부분의 은행이 탄소집약 산업 거래 상대방의 실제 자료가 아니라 대용치(proxy data)를 광범위하게 사용하였는바, 초기 단계 정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이므로 보다 정확한 자료 획득을 위해 해당 기업의 참여를 제고할 필요

□ **(테스트 결과 3)** 세번째 모듈 평가결과, 가뭄과 고온현상에 대한 취약성은 농업/건축업 등 산업별 생산성 감소에 더하여 관련한 대출 부실을 통해 현실화 되었는데, 위험 노출 지역에 따라 은행 별로 많은 차이를 보였음

- 홍수 위험 시나리오에 있어서도 유사하게 특정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담보 부동산 가치 감소 및 기업대출 부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

- 단기/무질서한 이행, 홍수 및 가뭄/고온 2가지 물리적 위험 시나리오 분석에서, 41개 은행의 신용 및 시장위험 손실 예상액은 700억유로 수준으로 예측되었지만,

동 손실액은 ① 경기후행 영향을 반영하지 않아 시나리오 자체에 관대한 측면이 있었고, ② 은행이 사용한 자료와 모델은 기후 요소를 부분적으로만 반영하였으며, ③ 감독기관이 동 자료를 검증하지 않아 신뢰도가 높지 않고, ④ 은행도 전체 리스크 노출량의 1/3 수준만을 평가하여 전체적으로 상당히 과소 평가된 수준

- 아울러, 은행들은 高탄소집약 산업에 대한 노출을 감소시키고 低탄소배출 사업을 지원하는 수준의 전략만을 가지고 있는 등 다양한 상황에 따른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

## 5 '24~'26년 중점 감독사항('23.12월)

- ECB는 그간 분석보고서 등을 통해 필요시 수시로 강조했던 기후위험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등과 관련하여 은행에 대한 종합적 위험평가 결과와 취약한 거시경제 환경 등을 반영하여 '24년~'26년중 수행할 중점 감독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
  - 지정학적 긴장과 더불어 기후 및 환경 위험(C&E risks)을 완화/조정하는데 필요한 대규모 초기 투자비용과 정책 변경 등은 현재의 불안정한 금융시장 상황 속에서 이행위험을 보다 가중시킬 가능성이 상존하는바,  
  
C&E risks를 영업전략, 지배구조 및 위험관리 체계에 융화하면서 업무관행을 개선하고 관련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등 감독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
- ECB는 실태점검 및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은행별로 기후위험 가이드라인 미흡 사항에 대해 이행 준수 기한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24년말까지 개선을 독려할 계획
  - 이를 위해 각 은행들에게 '23.3월까지 기후위험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위험이 은행의 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하였으며, '23년말까지 관련 위험을 지배구조 및 위험관리 전략에 반영하도록 하였음
  - 또한 '24년말까지는 ECB 감독대상 은행에 대해 기후위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제반 요구수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권고하였는바, 필요시 이행부담금 또는 추가자본 적립 등 감독수단을 활용할 계획
- ECB는 또한 은행들의 기후위험 관련 공시내용의 질이 상대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보고 공시관행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와 검증을 강화할 계획

- 또한 각 은행들이 제시한 기후위험 관련 탄소제로 등 목표와 관련하여 평판 저하 및 소송 제기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은행의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평가할 수 있는 감독체계를 마련하고,
- 아울러 기후위험에 대해 단독 또는 신용/운영/영업모델 검사 수행시 부문 테마 형태로 현장검사를 강화할 계획

## 6 이행위험에 대한 관리 개선 권고(‘24.1월)

- 파리 기후협약에 따라 EU는 유럽기후법(European Climate Law)을 통해 '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로 했으며, 우선 '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55% 수준으로 줄이는 세부계획(Fit for 55)을 시행중인데,
  - 대부분의 고탄소배출 기업이 자금조달을 은행 대출에 의존하고, 은행은 이자수익의 60%를 탄소집약산업에서 얻고 있어 위 감축 계획 시행으로 은행 수익성 및 대출 건전성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 기후중립으로의 적시적인 이행을 하지 않으면 화석연료 관련 자산 80%가 불용처리 될 것으로 분석되는바, 동 손실은 은행의 손실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에 동 이행위험이 무엇이고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파악할 필요
- 이에 대하여 ECB는 우선 이행위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후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이행위험의 전개방향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는데,
  - 유로지역內 은행의 80% 이상은 이행위험이 은행 전략 및 위험 체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행 위험의 중요성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ECB는 이행위험의 예측과 관련하여 은행의 신용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행위험 계량화 방법으로 일부 감독당국 및 은행들이 사용하고 있는 일치성 평가법(alignment assessment)을 추천
  - 5년 기간을 주기로 주요 경제분야별 기업들의 예상 생산량과 기후변화 목표 달성에 필요한 생산 수준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기준년도를 5년 기간씩 무한대로 연장할 수 있어 전체적인 예측이 가능하나, 현재까지는 기초자료 부족 등으로 인해 동 방법으로는 고탄소배출 산업 전체에 적용할 수는 없고 전체 산업의 70%수준에 대하여만 평가가 가능한 상황
- ECB가 일치성 평가법을 통해 유로지역 전체 대출의 75% 상당을 차지하는 95개 은행에 대해 분석한 결과, 현재의 신용포트폴리오는 파리 기후협약 목표에 중대하게 불일치하는 것으로 결론
  - 에너지 관련 기업에 대한 노출이 많은 은행 등 평가대상 은행의 90%가 높은 이행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예측
  - 또한 '21년 이후 전세계적으로 기후협약 준수를 공언한 기업 및 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560건 제기)이 급증하는 추세인데, 평가대상 은행의 70%가 관련 소송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예측
- 관련하여 ECB는 은행들이 이행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파리 기후협약 이행을 향한 현실적이고 투명하며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
  -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향후 은행들은 이행위험 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하고, 일부 은행들은 자신들의 신용 포트폴리오를 공개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바,
  - ECB에서 공개한 일치성 평가법 등을 참고하여 '50년에 달성해야 할 최종 목표를 위한 중간 과정으로서의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경영진이 관련 진행사항을 평가·조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Ⅲ 마무리(요약 및 시사점)

- ECB는 기후위험을 매우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 기후위험 가이드라인 등을 중심으로 단계별 감독방안을 마련하여 로드맵에 따라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등 유로지역 은행들의 기후위험 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기후위험 관련 글로벌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있음
  - 이와 관련 세부적으로 특히 기후위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수준에서 한 단계 보다 세분화된 이행위험 분석 뿐만 아니라, 평판/소송위험 등 파생 위험 분석을 실시하고 업계 모범관행을 전파하는 한편,
  - 기후위험 관리를 위한 단계별 중간 목표 설정을 통해 이행 실태를 평가하고 이를 은행 경영진이 직접 관리하도록 하여 다방면에서 은행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한 사항임
- 우리나라 금융당국 및 금융업계도 기후위험에 대한 이해와 대응도를 점차 높이고 있는바,

ECB등 선진 금융당국의 정책 내용과 업계동향 등을 적극 참고하여 관련 리스크 대응에 만전을 기하면서 안정적·지속적 발전 등을 도모할 필요